

<div data-bbox="201 309 564 398" data-label="Section-Header"> <h1>보도자료</h1> </div> <div data-bbox="258 421 507 465" data-label="Text"> <p>2025. 6. 30.</p> </div>	<div data-bbox="639 264 748 367"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09 277 1276 349" data-label="Section-Header"> <h2>양형위원회</h2> </div>	문의	<div data-bbox="957 430 1272 512" data-label="Text"> <p>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02-3480-1924)</p> </div>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심신미약과 양형』 개최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2025. 6. 30.(월)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심신미약과 양형』을 주제로 제14차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심신미약의 규범과 현실’(제1세션) 및 ‘심신미약과 양형심리’(제2세션)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제1세션에서 홍진영 교수는, 현행 양형기준상 심신미약 양형인자의 규정방식을 분석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양형기준의 한계를 제시한 다음 양형인자의 합리적인 해석·적용 방안을 제안함. 홍 교수는 심신미약 양형인자의 규정방식이 심신미약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범행동기에 따라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염려가 있으며, 양형기준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예방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다양한 개선책들을 제시하였음
 - 제2세션에서 김봉수 교수는, 양형심리에 있어 양형조사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양형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사실인정 심리절차와 양형 심리절차의 구분 없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양형심리 방식을 개선하여 양형 심리절차를 분리함으로써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양형판단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제1세션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①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 요지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방향성 자체는 보편적임.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보건법원 판사이자 법학자인 Richard D. Schneider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양형에서는 재사회화·재활을 양형의 목표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음. 한편 우리 양형기준은 양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피고인의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해 적합한 처우를 정성적으로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 양형기준은 심신미약 양형인자를 통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으로 나누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책임 없음’과 ‘(온전한) 책임 있음’ 사이에서 책임이 저감된 상태를 나타내는 심신미약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각 범죄군에서의 편입 방식도 일관되지 않음

○ 심신미약 양형인자의 적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예컨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복약을 하던 중 단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양형인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병식이 없거나 여건상 투약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약사실을 무조건 책임 귀속을 회복시키는 사정으로 보아 심신미약 감경인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는 정신질환이 음주, 약물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로서 ‘행위인자’인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및 ‘계획적 살인범행’ 등은 특별감경인자로서 ‘행위자인자’인 심신미약을 야기한 정신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행위인자 우월 원칙’에 따라 감경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신질환과 연계적, 유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그들 사이에

권고형량 범위의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고, 치료와 예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처우를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함

② 김연주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지정토론 요지

- 약물 복용의 중단행위가 본인의 의사와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으로 평가하고, 피고인이 치료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던 중 단약에 이른 경우와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우가 구분될 수 있도록, 심신미약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의 특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처벌불원'과 같은 방식으로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형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엄밀하게 평가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양형심리가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임
-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가 '치료가능성'임. 이를 공평하게 양형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역할 및 권한의 범위, 이행강제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치료감호시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담교소 등의 확충도 필요함

③ 문지원 검사(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심신미약을 이유로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등 특별가중인자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행위책임의 원칙, 법익 보호와 응보 등 형사사법의 목표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계획적 살인 범행'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체계적 준비행위와는 구별될 수 있음
- 심신미약 제도가 책임원칙을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진단의 시점, 진료 경과, 치료 이력 등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범행과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기준을 정립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법원이 엄격한 심리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④ 이상훈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토론 요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양형인자로 명시하지 않은 범죄군에서도 이를 일반양형인자로 명시하여야 함. 본임의 책임이 있는 심신미약의 규율영역은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상정될 수 있음. 위 표현 대신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라는 표현 또는 ‘의도’, ‘비의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규율영역을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행위에 대한 의도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양형기준이 근본적으로 책임 단계에서의 ‘양적’ 판단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이상, 양형인자들을 획일적으로 대동하게 취급하기보다는, 그들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비난동기 내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인정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제2세션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김정환 교수(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① 김봉수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 요지

○ 심신미약의 2가지 규범적 층위

-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로서의 심신미약과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이라는 2가지 규범적 층위로 나뉨
- ① 책임감경사유로서 심신미약: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전제인 심신장애 유무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에 맡기고, 감정절차는 법관의 책임능력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무화하여야 함. 이를 토대로 한 규범적 판단이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근거를 판결문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양형인자로서 심신미약: 특별감경인자로서 심신미약은 ‘행위자’인자로서의 한계를 가짐. 즉 ‘잔혹한 범행수법’ 등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은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함. 이는 근본적으로 행위자인자는 행위인자보다 열위에 놓는 산술식·계량식 평가방식에 기인하는 것임

○ 양형조사 및 심리에 있어 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보호관찰관**을 통한 ‘**판결 전 조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형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양형조사 주체를 일원화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양형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심리와 관련하여, 현행 양형기준 제도와 더불어 양형 심리절차를 사실인정 심리절차와 분리함으로써 양형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양형 심리절차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양형이유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김선화 판사(서울가정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범행시점과 현재의 피고인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의학적 판단과 법관의 규범적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음. 적어도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는 필수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치고, 심신미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판결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감정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내용은 사전에 정립되어야 함
- ‘범행수법의 잔혹성’ 등 특별가중인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책임능력 저하와 직접 관계된 경우 별도의 가중인자로 고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근본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 치료사법의 관점이 양형과정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양형조사 제도는 치료적 사법의 통로이자 기초자료로 기능해야 함

③ 서영은 일반정신과 과장(국립법무병원)의 지정토론 요지

- 정신질환의 특성상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를 심신장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신질환자 범행의 중대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심신장애자의 경우 범행 동기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의식의 결여 정도나 반사회적 성향의 강도에 따라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심신장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심신장애 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사후 처우 체계의 과학적 설계가 필요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통제 가능한 시점까지는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정신의학의 최신 지견은 정신질환자가 ‘달리 선택할 수 없었던 조건’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함. 이들에 대한 형벌과 치료, 책임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

4 박초희 법원조사관(수원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법원조사관은 법적 쟁점 및 재판 실무와 밀접하게 양형조사를 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법원조사관이 심리학, 사회복지, 범죄학 등 유관분야의 전공자인 경우가 많고, 법원행정처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법원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양형조사의 주체를 일률적으로 보호관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판 내 정당한 정보제공 절차로 제도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법원조사관의 자격, 권한, 양형조사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